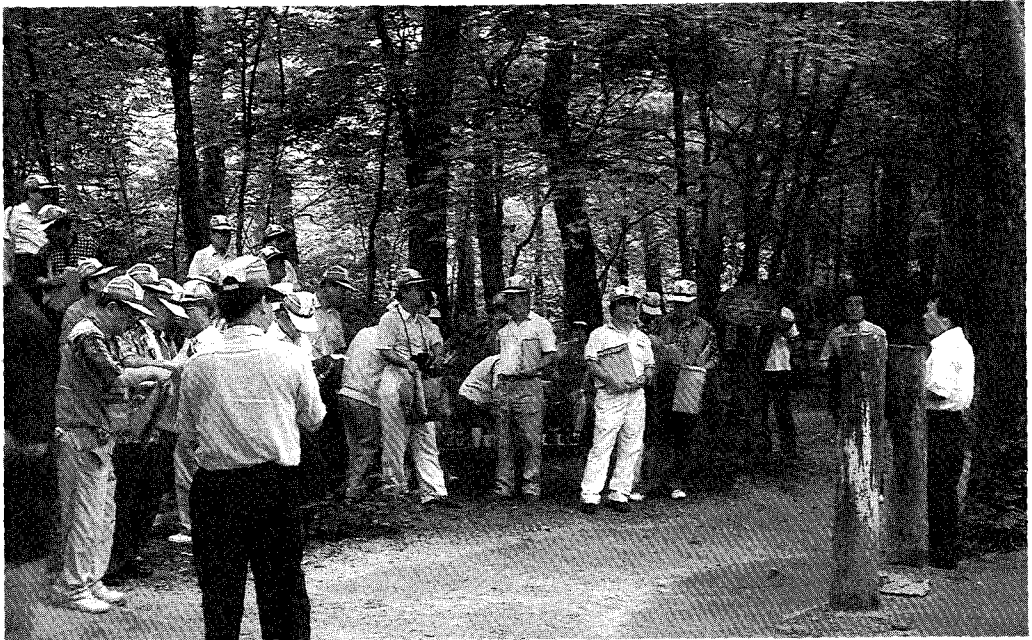


자연휴양림을 큰 돈벌이 사업으로 알면 곤란

휴양림 개념정립 홍보 필요, 공원과는 달라, 자연을 최대한 활용, 시설은 극소화



본회는 8.20~21까지 1박 2일로 대관령 강릉영림서 관내 자연휴양림현장에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최근 자연휴양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심있는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강사들의 주제발표와 토의로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다.

강사로는 산림청 경영조사과장 심동로씨의 정부의 시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고려대 변우혁 교수의 자연휴양림의 설계와 실제라는 주제발표로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 금방 떼돈이라도 벌것같은 들뜬 분위기는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 약삭빠른 업자들의 농간에도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튿날에는 임업기계 훈련원에서 기계장비 사용에 대한 시범을 견학한 후 오대산, 월정사를 경유 귀경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함에 후원해 주신 산림청 당국, 강릉영림서 김기철 서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그리고 임업기계훈련원의 마상규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